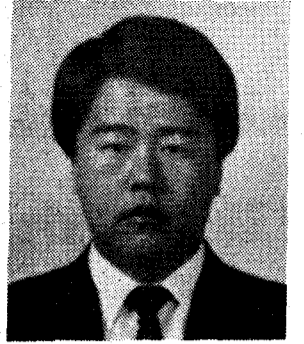


폐기종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김호중 <한림의대 교수>

진찰하면 청진상 호흡음의 감소와 휘파람 부는 소리 같은 천명음(wheezing)을 들 수 있고, 폐기종이 심한 환자에서는 청진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가까이에서 천명음을 들 수 있게 된다.

(1) 용어에 대한 설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이란 만성적이고(chronic) 반복적으로 숨을 쉬는 기도가 좁아져서 (obstruction), 이로 인해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를 일으키게 하는 질환들의 총칭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 노령인구의 증가와 심각한 대기공해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크게 만성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과 폐기종(emphysema)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병이 만성으로 진행되면 이들은 분리하여 진단하기 어려워 통칭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부른다. 흔히 노인들에 있어 "해소병"이나 "만성 천식"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에서 잘못 통용되는 용어이다. 기관지천식(bronchial asthma)이 우리말로 해소, 천식이며, 이는 선천적 요인, 알레르기, 자율신경의 이상이 중요한 인자로 관련되는 병으로써 만성 폐쇄성폐질환에 비해 발병연령이 어리며, 기도 폐쇄가 가역적이어서, 증상이 없을 때에는 정상인과 같은 소견을 보인다. 물론, 젊어서 발생한 기관지천식이 나이가 들면서 만성화되면 이를 "만성 천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보다는 "중증 천식"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하여간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문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용어를 사용하겠으며, 일반적으로 "해소", "천식"이라는 용어를 만났을 때에는 어떤 병을 구체적으로 칭하는가 하는 것을 분간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알리고

자 한다.

(2) 폐기종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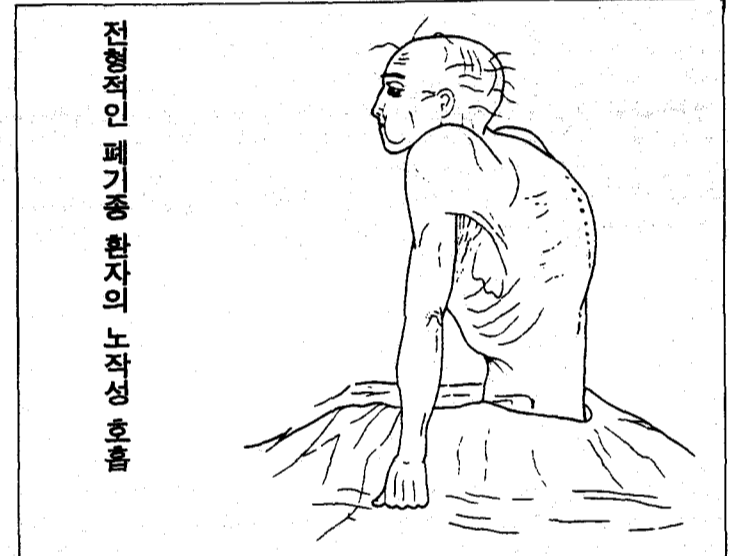
폐기종의 원인으로는 흡연, 대기 공해, 유전적 요인,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 반복적인 기도 감염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원인들에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면 기관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폐를 이루고 있는 폐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 폐포(alveoli)는 공기중의 산소는 혈액속으로,

의 보상 기전으로 호흡 곤란을 덜고 있다. 즉, 숨을 내쉴 때 보통 건강한 사람은 가슴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폐포의 탄성으로 저절로 숨을 내쉬게 되지만, 폐기종환자들은 가슴과 목의 근육을 이용하여 숨을 쉰다는 의도적인 호흡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숨을 내쉴 때 입을 오무려 내쉬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협착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급성 감염이나 기도 자극물질에 노출, 기흉, 심부전 등이 여기에 합병되며 더 이

평상시에는 이를 느끼지 못하다가, 운동을 하거나 경사진 곳을 오를 때, 계단을 오를 때 특히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어 폐기종이 심한 환자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어 허덕이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호흡량을 늘리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특징적인 호흡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노작성 호흡이라고 한다(그림 1). 즉, 마른 체격에 흉곽의 폭에 비해 앞뒤 길이가 길어지는 슬픈형(ba-

금연·유해물질 노출방지등 예방이 최선 심해지면 호흡곤란, 천명음 생겨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공기중으로 교환하게 하는 폐의 중요한 기능 단위인데 이러한 폐포의 벽(폐포벽 : alveolar wall)은 탄력성이 좋은 elastin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숨을 내쉴 때 폐포를 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원인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러한 폐포벽이 파괴되어 숨을 내쉬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더 진행되면 기관지도 좁아지게 된다. 폐기종 환자에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이유는, 폐포벽의 탄성물질이 기관지를 밖으로 당겨서, 숨을 내쉴 때 기관지가 내부로 좁아지려는 공기의 힘에 맞서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폐포벽이 파괴되면 이 힘이 약해져서, 숨을 내쉴 때 기관지가 내부로 좁아지게 된다.



전형적인 폐기종 환자의 노작성 호흡

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급성 호흡부전(acute respiratory failure)에 빠지게 된다.

rel-shaped) 흉곽이 되고, 어깨가 올라가고 입술이 모아져서 한숨을 쉬듯 숨을 몰아쉬게 되는 것이다. 호흡곤란 이외에도 짙은 객담, 기침, 각혈을 보일 수 있고 입술 등 점막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chanosis), 손가락, 발가락이 끝이 몽푹해지는 곤봉지(finger clubbing) 등을 나타낼 수 있다. 폐기종 환자를

(3) 폐기종의 자연경과

폐기종 환자들은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호흡곤란을 느끼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인체

(4) 폐기종의 임상 양상

폐기종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흡곤란이 경미한 환자에서는

(5) 치료 및 예방

폐기종과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비가역적으로 기도의 폐쇄이 초래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완치할 수는 없고 내과적인 투약과 객담 배출로 호흡곤란을 감소시킴으로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의 자연경과이므로 폐기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금연이 근간이 되고, 감염의 조기 치료, 직업적 노출의 방지 등도 중요한 예방방법이다.

담배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인 1천만명 이상이 피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폐기종과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이외에도, 폐암,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고, 미국의 통계를 인용하면 흡연자의 평균 수명이 비흡연자보다 6~8년이 단축된다는 조사가 있어, 이를 담배 개피로 환산하면 담배 한개피당 5~6분에 해당된다고 한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건강보조식품 제조품목허가 보사부 제12-5호

면역기능과 효소의 營養寶庫

맥주효모에 비타민E, 알로에와 우골분을 강화시킨 미생물식품

리포마 포르테

체질개선식품 전문생산업체
(주)한국바이오에너지
Korea Bio-Energy Co., Ltd.

본사 : 서울·강남구 논현동 163-4(3층)
공장 :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213-3

- 리포마-포르테는 면역기능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특수다당체, 핵산, 비타민E등이 풍부합니다.
- 리포마-포르테는 인체의 모든 대사활동을 조절하는 효소의 재료영양소-비타민B군, 미네랄, 미량원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 리포마-포르테는 건강의 유지 및 회복에 있어 지름대 역할을 하는 면역기능과 효소의 완벽한 영양집체입니다.

■ 서울·경기(인천) : 신사동540-1250 • 논현동515-4492 • 대치동557-3958 • 삼성동554-1664 • 서초(A)586-5607 • 서초(B)554-8327 • 강동(A)475-5522 • 강동(B)484-8800
 • 감서651-6228 • 관악(A)887-5005 • 관악(B)882-3246 • 마포(A)715-2062 • 마포(B)324-4822 • 송파409-9182 • 양천654-4423 • 서대문372-3719 • 성동(A)467-3890
 • 성동(B)295-1113 • 도봉(A)986-7760 • 도봉(B)992-6160 • 우이900-5730 • 중로737-2555 • 중랑494-7655 • 인천(A)423-1986 • 인천(B)425-8856 • 부천655-7923 • 수원(A)251-4121
 • 수원(B)251-9442 • 군포52-2289 • 광명688-6023 • 하남31-7952 • 성남758-6891 • 안양 45-2927 • 송탄 665-7890 • 의정부 847-9184 • 평택 53-7912 • 안산 80-8975 • 구리 553-9181 ■ 강원 : 강릉646-1970 • 춘천51-7170 • 태백52-8444 • 원주43-0070 • 속초33-4820 • 고성681-4240 ■ 부산(경남) : 부산지사633-3462~3 • 송무2-8646 • 진해 2-4103 • 창원82-3876 • 마산96-1992 • 김해34-7495 ■ 대구(경북) : 대구지사252-0076 • 안동2-5904 • 영주2-6272 • 포항73-1231 • 경주43-4944 • 구미(A)53-3711 • 구미(B) 481-5002 • 선산 481-5002 • 영천31-2987 • 상주34-0329 ■ 광주(전남) : 광주지사232-7393 • 목포43-3201 • 순천744-2218 • 장성92-4592 ■ 전북 : 전주지사86-6117 • 전주 (덕진구)74-9171 • 전주(북부)74-1161 • 이리52-7487 • 군산446-1941 • 부안83-2283 ■ 대전 : 대전지사 255-0144 • 대덕(유성)626-9984 • 중구253-5529 • 서구525-7572
 • 중구252-1718 ■ 충청북 : 충남북지사(예산)2-6656 • 청주(A)56-3919 • 청주(B)4-1281 • 공주54-3202 • 천안553-4385 • 홍성845-4095 • 대천935-0388 • 홍성641-1901
 • 당진363-0415